

향교

고

석

전

鄉校釋奠

전주향교 · 제주향교

전북대학교



E00871962





目次

I. 전주향교 석전

010

1. 전주향교의 역사

012

- 1) 전주향교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 2) 전주향교의 배향인물

2. 전주향교의 석전

050

- 1) 분향焚香
- 2) 석전釋奠
- 3) 제물祭物
- 4) 제구祭具
- 5) 제복祭服

3. 전주향교 석전의 특징

116

- 1) 봉안신위奉安神位
- 2) 계성사啓聖祠
- 3) 제수祭需 와 진설陳設
- 4) 제례절차祭禮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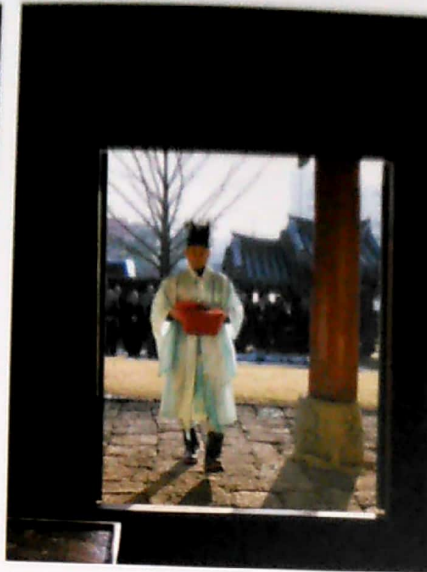
4. 전주향교의 운영과 전승

120

- 1) 전주향교의 운영과 조직
- 2) 전승과 지속

• 전주향교 홀기

132



目次

Ⅱ. 제주향교 석전

1. 제주향교의 역사	166
1) 제주향교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168
2) 제주향교의 배향인물	
2. 제주향교의 석전	186
1) 분향焚香	
2) 석전釋奠	
3) 제물祭物	
4) 제구祭具	
5) 제복祭服	
3. 제주향교 석전의 특징	278
1) 봉안신위奉安神位	
2) 계성사啓聖祠	
3) 제수祭需 와 진설陳設	
4) 제례절차祭禮節次	
4. 제주향교의 운영과 전승	282
1) 제주향교의 운영과 조직	
2) 전승과 지속	
• 제주향교 হল기	298

3) 제물(祭物)

(1) 진설(陳設)

향교의 유사들은 대성전 월대 앞 계단 아래 정면에 자리를 깔아 절할 자리(階間拜位)를 마련하고 헌관위와 제집사위, 제생위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전교석과 헌관위는 계단 아래 동쪽에서 서향하고, 제집사 및 제생위는 모두 북향하여 서게 한다. 헌관위 뒤쪽 월대 아래에 관세위를 설치한다. 관세위는 헌관 및 제집사들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 손을 씻는 자리로 세수대야와 수건을 준비하여 둔다. 묘우 중문 밖 동쪽에 정위 준소(尊所)를, 동·서문 앞에 동·서 종향위 준소를 설치한다. 동·서무 종향위 준소는 동·서무 문밖에 각각 설치한다. 정위 준소에는 초헌·야헌·종헌 용의 산뢰(山罍) 셋을 놓고 그 위에 술을 뜨는 국자인 용작(龍勺)을 올려놓는다. 준탁(尊卓) 위에는 5성위에 대한 삼헌용의 작(爵)을 각각 셋씩 모두 15개를 준비한다. 동·서 종향위에는 준을 산뢰 하나만 놓고 작은 분헌례 때 한잔만 올리게 되므로 동·서 각각 8개이다. 동·서 종향위 준소 옆에는 작을 닦는 작세위(爵洗位)도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음복례 때 필요한 음복상도 미리 준비해 둔다. 음복상 위에는 칼(刀)과 도마(俎) 그리고 음복작(飲福爵)을 올려놓는다. 대성전 서쪽에 제향 후 폐백과 축문을 태우는 망예위도 미리 점검해둔다.

제물(祭物)을 사당으로 운반



진설 담당 집사는 제물을 사당 안으로 운반하여 신위전 탁상에 제물을 진설한다. 진설 순서는 정위인 대성위로부터 배위인 4성위 그리고 동서 종향위의 순으로 한다. 각 신위 앞에는 제상이 있고 그 앞에 향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향로와 향합이 놓여 있다.

석전의 진설 순서는 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성전 오성위에는 변두를 8번 8두 차림으로 신위의 좌우에 행과 열을 맞추어 놓고, 다음에 보례를 2보 2례를 갖추어 변두 사이에 올리며, 보례 앞에 희생을 담은 조(俎)를 놓는 순서로 진설한다.

좌8변은 제1행에 형염(形鹽: 소금)을 먼저 놓고 그 뒤에 어수(魚鱸: 대구포)를 놓는다. 다음 제2행에 건조(乾棗: 대추)를 놓고, 그 뒤에 율황(栗黃: 밤)과 진자(榛子: 잣)를 차례로 놓는다. 그리고 제3행에 능인(菱仁: 은행)을 앞에 놓고, 그 뒤에 검인(芡仁: 호도)과 녹포(鹿脯: 육포)를 차례로 놓는다.

우8두는 제1행에 구저(韭菹: 부추)를 놓고, 그 뒤에 탐해(醢醢: 소간)를 놓는다. 다음 제2행에는 청저(菁菹: 무)를 앞에 놓고, 그 뒤에 녹해(鹿醢: 처첩)와 근저(芹菹: 미나리)를 차례로 놓는다. 마지막 제3행에 토해(兔醢: 토끼고기)를 앞에 놓고 그 뒤에 순저(筍菹: 도라지 대용)와 어해(魚醢: 간조기)를 차례로 놓는다.

보(簋)에는 도량을 담아 변두 사이의 좌측에 량(梁: 조)을 앞에 놓고 도(稻: 쌀)를 그 뒤에 놓는다. 궤(簋)에는 서직을 담아 그 우측에 직(稷: 피)을 앞에 놓고 서(黍: 수수)를 그 뒤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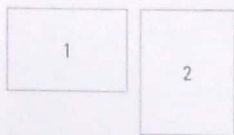
희생은 성균관 석전에는 현재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牛腥)·양성(羊腥)·시성(豕腥) 삼생(三牲)을 쓰고, 향교 석전에는 양성·시성 두 가지를 올린다. 종향위는 성균관이나 향교 모두 시성 한 가지만 올린다. 『전주향교지』의 의절(儀節)에는 양성·시성을 진설하는 것으로 도시(圖示)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성위에는 우·양·시 삼생을 쓰고 배위인 4성위에는 우성과 시성 두 가지만 올리고 있다. 대성위 삼생은 우성(소머리)을 가운데에 놓고 서쪽에 시성(돼지머리), 동쪽에 양성을 올리는데, 양고기를 구하기 어려워 쇠고기(육괴)로 대신하고 있다.

전내 종향위 및 동·서무 종향위는 변두는 4변 4두, 보궤는 1보 1궤로 진설하고, 희생은 시성 한 가지만 올린다. 4변은 신위의 좌측에 형염을 먼저 놓고 그 뒤에 건조를 놓는다. 그 다음 제2행에 율황을 놓고 그 뒤에 녹포를 놓는다. 4두는 신위의 좌측 제1행에 청저를 앞에 놓고 그 뒤에 녹해를 놓는다. 제2행에 근저를 앞에 놓고 어해를 그 뒤에 놓는다. 『국조오례의』 및 『태학지』에 종향위에는 2변 2두로 진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주향교에서는 4변 4두로 올리는 것이 다르다. 계성사의 진설은 종향위와 같다.

진설은 1일전 습의를 마치고 미리 진설하는데 삼생과 탐해(소간), 녹해(저넙), 토해(토끼고기) 등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석전 당일 아침에 진설한다.

공자위(孔子位) 진설(陳設)





1. 진설하기 위해 마련된 제물
2. 준소(尊所)에 마련된 산뢰(山醴)에 술을 따름



(2) 음식

전주향교에서는 춘추 향사를 5월 11일과 9월 28일에 각각 지내고 있고, 2009년도 춘추향사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기본적으로 춘추향사와 사용하는 제물은 동일하다. 전주향교의 제물비용은 시에서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으로 춘·추 향사를 지내며 사용한다. 주지식씨(70세, 1941년 생) 내외는 평소 전주향교에서 거주하며 전주향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사 때 제물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전주향교의 배향인물은 77위로 대성전에는 8변 8두, 계성사에는 4변 4두를 각각 진설하고 있으며 대성전 공자위는 다른 제물보다 양과 규모가 조금 더 큰 수준이다. 변(簋), 두(豆), 보(簋)와 궤(簋) 등에는 각종 제물을 담는다.

먼저 변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로 마른 제수 8가지를 담는다. 변은 신위의 왼편에 안쪽으로부터 제1행에 형염(形鹽), 어수(魚鱸) 제2행에 건조(乾棗), 율황(栗黃), 진자(榛子) 제3행에 능인(菱仁), 검인(芡仁), 녹포(鹿脯)를 차례로 놓는다.

형염(形鹽)은 원래 소금을 뭉쳐 호랑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마른 소금을 그대로 올린다. 건조(乾棗)는 마른 대추를 사용하고 있다. 능인(菱仁)은 마름인데 은 행으로 대신 사용한다. 율황(栗黃)은 원래 껍질을 벗기지 않은 밤인데 요즘은 겉껍질과 속껍질을 모두 벗긴 밤을 사용하고 있다. 검인(芡仁)은 가시연밥의 열매로 호두로 대신 사용한다. 어수(魚鱸)는 말린 고기로 대구포를 사용하고 있다. 진자(榛子)는 개암인데 잣으로 대신 사용한다. 녹포(鹿脯)는 사슴고기포인데 쇠고기포로 대신 사용한다.

두(豆)는 나무로 만든 제기로 물기 있는 제수 8가지를 담는다. 두(豆) 8개는 오른편에 3열로 놓는데, 제1행에 구저(韭菹), 탐해(醢醢) 제2행에 청저(靑菹), 녹해(鹿醢), 근저(芹菹) 제3행에 토해(兔醢), 순저(筍菹), 어해(魚醢)를 차례로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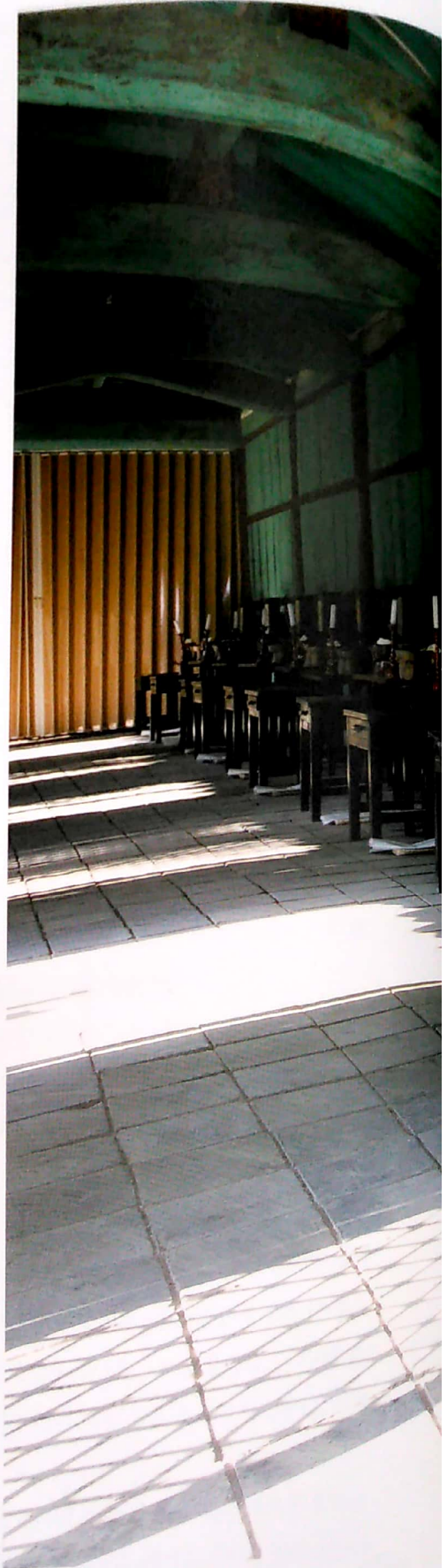
구저(韭菹)는 부추를 위아래를 잘라 네 치(四寸) 크기로 만든 다음 실로 묶어서 진설한다. 청저(靑菹)는 무를 네 치(四寸) 크기로 깎두기 형태로 썰어서 진설한다. 토해(兔醢)는 토끼고기를 말린 뒤에 얇게 썰어 누룩과 소금물을 섞어서 좋은 술에 담가 향아리 속에 백일동안 두어 말린 것인데, 토끼고기로 대용한다. 순저(筍菹)는 죽순인데 도라지로 대신 사용한다. 녹해(鹿醢)는 노루고기를 말린 뒤에 그것을 얇게 썰어 누룩 및 소금물을 섞어서 좋은 술에 담가서 향아리 속에 백일동안 두어 만드는데 요즘은 소간과 천엽으로 대신한다. 탐해(醢醢)는 돼지고기를 말린 뒤에 그것을 저며서 누룩 및 소금물에 섞은 뒤 좋은 술에 담가 향아리 속에 백일동안 두어 만드는데 요즘은 장조림으로 대용한다. 근저(芹菹)는 미나리를 아래와 위를 잘라 네 치(四寸) 크기로 만든 다음 실로 묶어서 진설한다. 어해(魚醢)는 조기으로 대신한다.

보(簋)와 궤(簋)는 각각 한쌍으로 변두사이에 놓는데 보를 왼쪽에, 궤를 오른쪽에 놓는다. 보에는 도량을 담아 량(조)을 앞쪽에 도(쌀)을 뒤쪽에 놓고, 궤에는 서직을 담아 직(피)



1. 사성위(四聖位) 진설(陳設)
2. 동·서종향위(東·西從享位) 진설

을 앞쪽에 서(수수)를 뒤쪽에 놓는다. 시성은 돼지고기인데 돼지머리를, 우성은 쇠고기인데 소머리를, 양성은 양고기인데 돼지고기로 대신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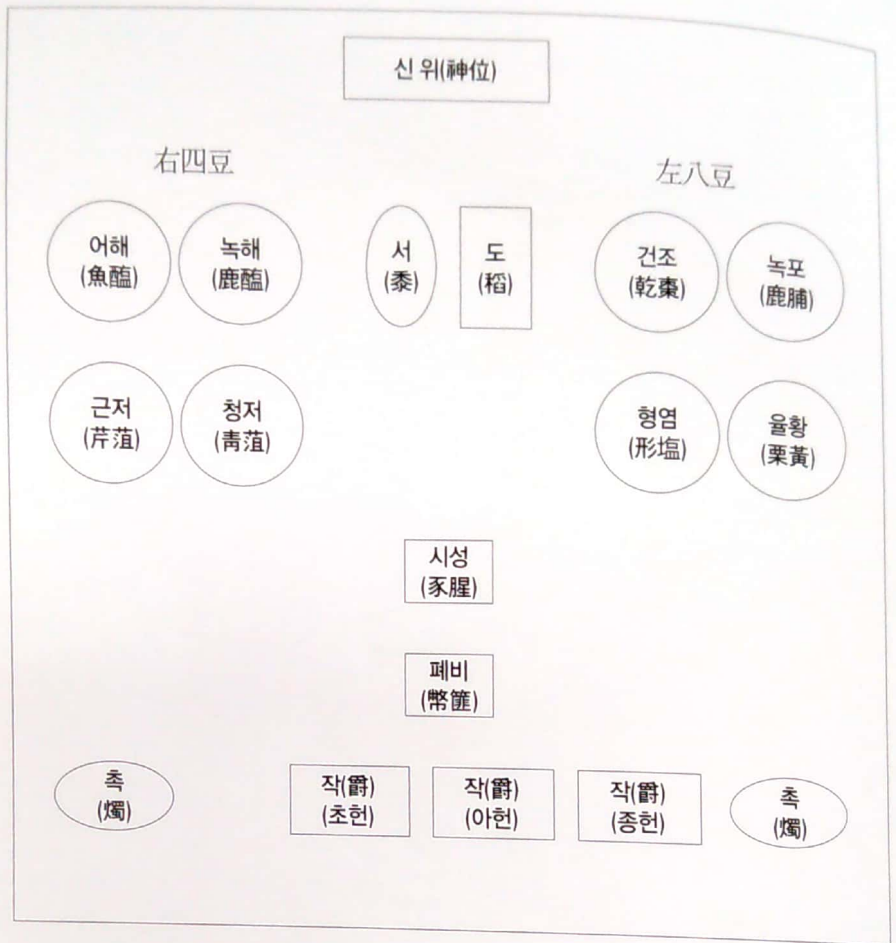


1, 2. 동·서무(東·西廡) 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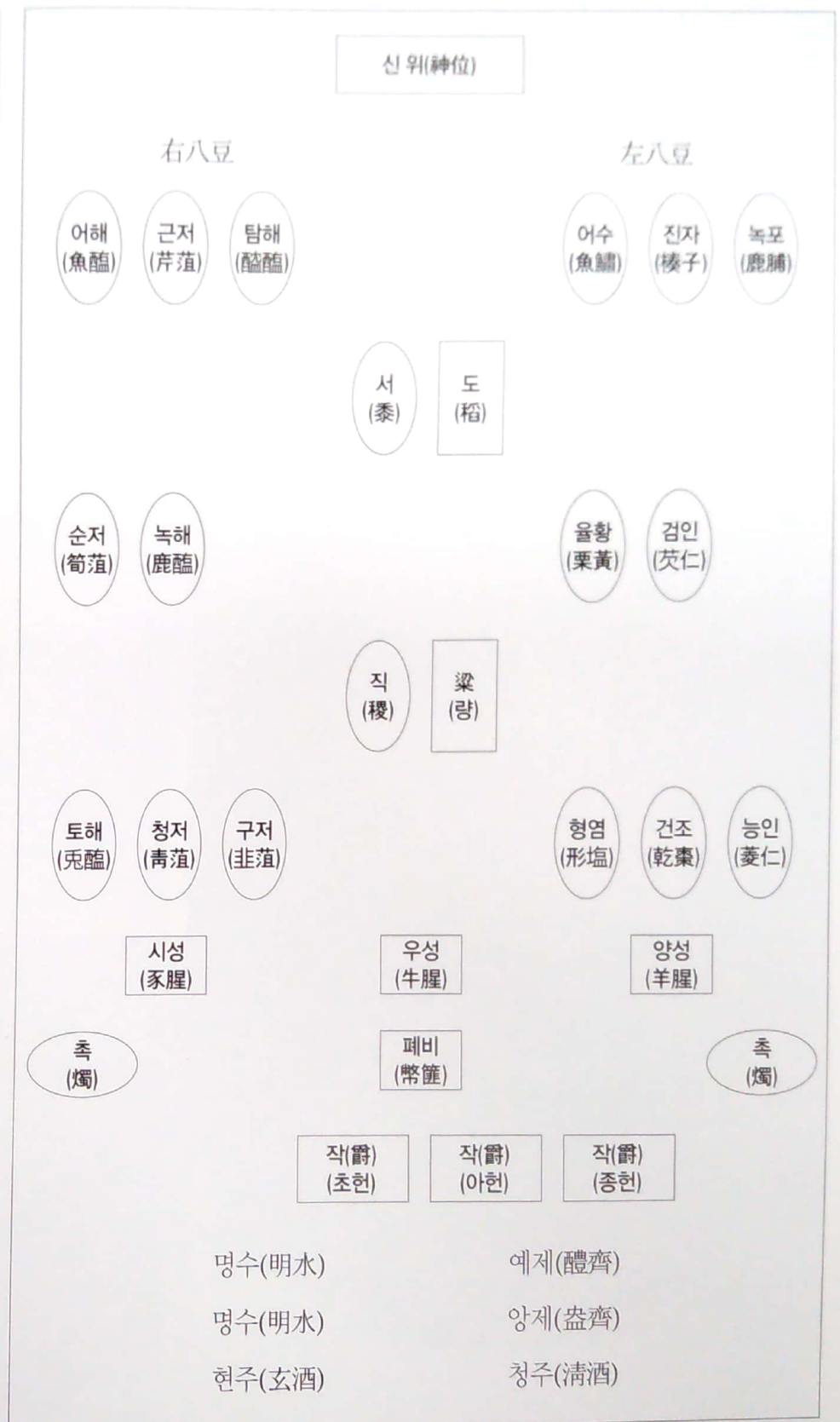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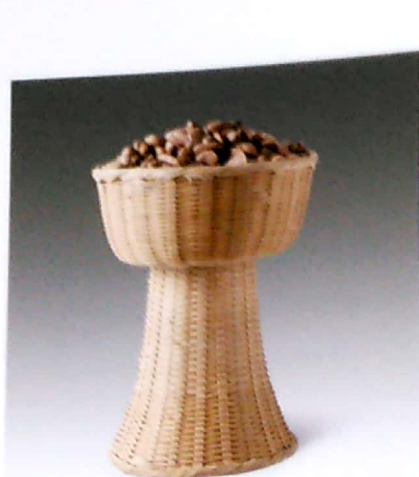
계성사 동·서종향 및 동·서무진설도
 (啓聖祠東·西從享 및 東·西廡陳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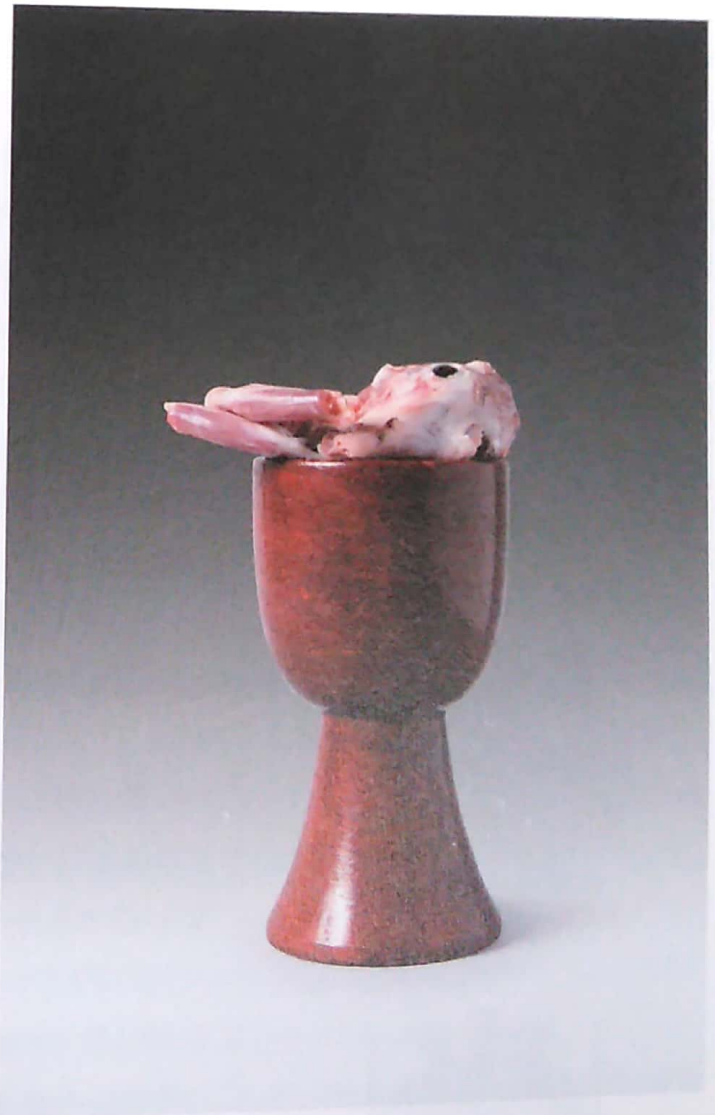
진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성전진설도(大成殿陳設圖)







4) 제구(祭具)

석전은 국가전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국조오례의』, 『태학지』, 『대한예전』 등의 예서에 규정된 제례 법식 및 절차가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국가전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되어 제사의 위격(位格)에 따라 차리는 제수의 종류 및 품수(品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서에 의한 석전의 전통적인 제기의 종류와 예찬(禮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籩)·두(豆)

제사지낼 때 마른 음식이나 과일 등을 담은 굽이 높은 그릇을 변(籩)이라 하고, 소채류(蔬)나 고기장조림(醢) 등 젖은 제수를 담은 그릇을 두(豆)라고 한다. 변은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죽변(竹籩)이라고 하며, 두는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목두(木豆)라고도 한다. 변은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는 오른쪽(서쪽)에 대칭되게 차린다. 『국조오례의』의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변은 대나무로서 만들었는데, 입구의 직경은 4촌(寸) 9푼(分), 발의 높이까지 합하여 5촌 9푼이며, 길이는 1촌 4푼, 발의 직경은 5촌 1푼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두의 높이와 깊이, 입구와 발의 직경은 변과 같다.

국가 대사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에는 10변 10두, 소사에는 8변 8두 또는 4변 4두를 차리는 것으로 품수에 차등을 둔다. 조선시대에는 국학인 성균관은 중사의 예로 10변 10두를 쓰고 향교는 소사의 예로 8변 8두로 진설하였다. 현재 성균관 석전대제는 12변 12두를 차린다. 전주향교에서는 대성전 5성위에 8변 8두를 올리고, 종향위와 계성사에는 4변 4두를 각각 진설한다.

종향위의 진설에 예서는 좌변(左籩)에 율황과 녹포, 우두(右豆)에 청저와 녹해로 2변 2두를 쓰는데, 전주향교에서는 좌변에 형염·건조·율황·녹포를 놓고 우두에 청저·녹해·근저·어해를 놓아 4변 4두를 진설하고 있다. 계성사도 종향위와 같다.

보(簠)·궤(簋)

보(簠)는 나라의 제사 때 도(稻)와 량(梁)을 담은 동(銅)으로 만든 제기이다. 그 모양은 밖이 네모지고 안이 둥글며 뚜껑이 있다. 「석전의」에는 ‘보는 동으로 주조하는데 뚜껑까지 아울러 무게가 13근(斤) 2량(兩), 뚜껑까지 전체의 높이는 7촌, 깊이는 2촌, 속의 너비는 8촌 1푼, 가운데 직경은 1척 1푼이다.’라고 하였다.

궤(簋)는 서(黍)와 직(稷)을 담은 타원형의 제기이다. 「석전의」에 ‘궤는 동으로 주조하는데, 뚜껑까지 합하여 무게가 9근(斤)이요, 뚜껑까지 전체의 높이는 6촌 7푼, 깊이는 2촌 8푼, 속의 너비는 5촌, 가운데 직경은 7촌 9푼, 너비는 5촌 6푼이다.’라고 하였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데 보는 신위의 왼쪽에, 궤는 오른쪽에 놓는다. 석전 제향에는 성균관과 향교 모두 오성위에 2보 2궤를 갖추어 도·량·서·직을 다 갖



변(籩)



두(豆)



보(簠)



궤(簋)

추어 올리고, 종향위에는 1보 1궤에 도와 서만을 담아 올린다. 계성사에는 종향위와 같이 1보 1궤를 진설한다.

조(俎)

조(俎)는 소, 양, 돼지 등의 희생(犧牲)을 담은 도마처럼 생긴 제기인데, 대체로 그 위에 목생갑(木牲匣)을 얹는다. 「석전의」에는 '조의 길이는 1척 8촌, 속의 너비는 8촌, 높이는 8촌 5푼이며 양쪽 끝은 붉게 칠하고 가운데는 검게 칠한다.'고 하였다.

대성전 오성위 성균관 석전에는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牛腥)·양성(羊腥)·시성(豕腥)의 삼생(三牲)을 쓰고, 향교 석전에는 양성·시성 두 가지를 올린다. 종향위는 성균관이나 향교 모두 시성 한 가지만 올린다. 전주향교에서는 대성위에 우·양·시 삼생을 쓰고 배위인 4성위에는 우성과 시성 두 가지만 올리고 있다. 종향위와 계성사는 시성 한 가지만 올린다.



조(俎)



비(篚)

비(篚)

비(篚)는 제사 때 신위에게 드리는 예물인 폐백을 담은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이다. 폐백을 담기 때문에 폐비(幣篚)라고도 한다. 폐백은 원래 흰 모시(苧布)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보통 흰색 면포나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석전의」에 '비는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발까지 합하여 전체 높이는 5촌, 길이는 2척 8촌, 속의 너비는 5촌 2푼, 깊이는 4촌, 뚜껑의 깊이는 2촌 8푼이다. 물건을 받치는데 사용하며 마다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폐백은 대성전 오성위와 계성사의 오성위에만 올린다.

작(爵)과 점(沾)

헌작 때 사용하는 동(銅)으로 만든 술잔이다. 「석전의」에는 '작은 무게가 1근 8량이며, 기둥을 합하여 8촌 2푼이고, 깊이는 3촌 3푼이다. 아가리의 직경은 6촌 2푼이고, 너비는 2촌 9푼이며 두 개의 기둥과 세 개의 발에 유출구가 있고 판(쇠로 된 널판)이 있다.'고 하였다. 「시경」의 「예기도설」에 말하기를 '위의 두 개의 기둥은 술을 다 마시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였다'고 한다.

대성전 5성위와 계성사는 초헌·아헌·종헌 삼헌을 하므로 각 신위마다 셋씩 준비하고 종향위에는 분헌례 때 단헌을 하게 되므로 각 신위마다 하나씩 준비한다.

축판이나 작(爵)을 올려놓기 위하여 유기로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받침이다. 축판을 올려놓는 것은 축점(祝沾),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爵沾)이라고 한다.



작(爵)과 점(沾)

준(尊)과 작(勺)

준은 제향 때 사용하는 유기로 만든 술항아리이다. 예서에는 초헌용으로 예제(醴齊)를



준(尊)과 작(勺)



준소(尊所)



세(洗)

담는 희준(犧尊), 아헌용으로 양제(盞齊)를 담는 상준(象尊), 종헌용으로 청주(淸酒)를 담는 산뢰(山罍)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주향교에서는 현재 모두 산뢰로 대신한다. 제주(祭酒)는 향교에서 직접 빚은 술을 사용한다.

작(勺)은 헌작이나 관세 때에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와 같은 기구이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를 조각하여 용작(龍勺)이라고도 한다.

준소(尊所)

준소(尊所)는 제향 시에 술을 따르는 곳으로 대성전 밖에 오성위 준소와 동·서 종향 준소를 마련하고 동·서무 종향위 준소는 동무와 서무 출입구에 각각 따로 설치한다. 준소에는 술향아리(尊)와 술잔(爵) 및 술을 뜨는 국자(勺)를 준비해둔다. 오성위 준소에는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산뢰 셋과 각 신위의 작을 셋씩 다 갖추어놓고 종향위는 분헌례 때만 헌작하므로 산뢰 하나에 작이 각각 하나씩이다.

먹(幕)

먹(幕)은 제사에 쓰이는 술향아리(尊)를 덮기 위하여 베나 갈포(葛布)로 네모나게 만든 덮개이다. 「석전의」에 말하기를 「삼례도」에는 포의 폭이 2척 2촌이고 등글게 하였는데, 오늘날은 포 한폭으로 네모지게 만든다.」고 하였다. 「주례도」에는 8준(尊)은 하늘과 땅에 드리는 까닭에 소포(疏布)의 건(巾)을 사용하였으니 질(質)을 숭상한 것이요, 6이(六彝)는 종묘에 강신할 때 쓰는 까닭에 포 가운데 정(精)한 것을 쓰고 구름을 그려서 무늬를 넣는데 특생(特性)의 먹과 더불어 가는 침베(絺)를 쓴다.」고 하였다. 홀기의 헌작 때에 '거먹작주(舉幕酌酒)'란 말은 '먹을 들고 술을 따르라'는 뜻이다. 지금은 예서에 규정된 먹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지로써 술향아리를 근봉(謹封)하여 먹에 갈음하고 있다.

세뢰(洗壘)

세뢰(洗壘)는 작이나 손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을 담아놓는 물둥이이다. 「석전의」에서 이르기를 '세뢰는 무게가 12근, 높이가 1척, 아가리 직경이 8촌 4푼이며, 깊이가 7촌 1푼인데 발의 직경이 7촌 9푼이다.' 라고 하였다.

세(洗)

세(洗)는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수대야이다. 「석전의」에서 '세는 무게가 8근 8냥이요 발을 포함하여 높이가 5촌 7푼이며 입의 직경이 1척 3촌 6푼이요 깊이가 2촌 9푼인데 발의 직경이 8촌 9푼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세뢰와 세의 구분 없이 관세위(盥洗位)에 세수대야 하나로 겸용하기도 한다.

이밖에 각 신위 앞에는 제상과 향안(香案)이 설치하고 제상 위에는 좌우에 촛대(燭臺)

를 놓는다. 향안은 향로와 향합, 축판을 올려놓는 소탁자로 향탁(香卓)이라고도 한다.

성균관 석전에는 국(羹)을 진설하기 때문에 국을 담은 용기인 유기로 만든 등(甗)과 형(鉶)이 더 필요하다. 등은 와두(瓦豆)라고도 하며, 형은 세 개의 발과 두 양쪽이 귀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은 우(牛)·양(羊)·시(豕) 세 가지를 차리는데 오미(五味)를 넣지 않은 대갱(大羹)과 가미하여 조리한 화갱(和羹)으로 구분하여 대갱은 등에, 화갱은 형에 각각 담아 올린다. 향교석전에서는 국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등과 형은 필요하지 않다.

5) 제복(祭服)

전주향교 행례 시의 제복은 춘추 석전 때 입는 금관제복과 매월 삭망분향례 때 입는 유건제복 두 종류가 있다. 예서에 규정되어 있는 석전 제복은 다음과 같으며 향교에서는 지금도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다. 『태학지』에 규정된 석전 제복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관모(冠帽)

관모는 머리에 쓰는 관으로 품계에 따라 1품관은 5량, 2품관은 4량, 3품관은 3량,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 7품 이하는 1량으로 구별하였다. 모두 뿔로 비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나무로 비녀를 만들고 있다.

홀(笏)

홀은 의식 시에 손에 잡는 의식용품으로 4품 이상은 상아홀을, 5품 이하는 나무홀(木笏)을 사용하였다.

수(綬)

수는 예복을 입을 때 허리 뒤에 늘이는 장식 의장으로 후수(後綬)라고도 한다. 2품 이상은 황(黃)·록(綠)·적(赤)·자(紫)의 4색을 쓰며 운학을 수놓는다. 3품 역시 4색을 쓰며 반조(盤鵲: 독수리)를 수놓는다. 4품에서 6품까지는 황·록·적 3색을 사용하며 연작(練鵲: 때까치)을 수놓는다. 7품 이하는 황록의 2색을 사용하며 계칙(鷩鷩: 뽕부기)을 수놓는다.

중단(中單)

중단은 제복의 안쪽에 받쳐 입는 속옷으로 백삼(白衫)이라고도 한다. 흰색 비단으로 만들며, 소매 끝과 옷자락 끝, 뒷깃에 청령(靑領)을 대었는데, 지금은 검은 깃을 대어 만든다.